대한불교예술원
Tel:(02) 930-1461 / 011) 256-8200

◇강인한 생명력으로 철마다 다른 얼굴을 내보이며 분황사 경내를 장엄하는 들꽃들은 모처럼 고찰을 찾은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준다.

분황사에 가면 '들꽃만발'

가을 햇살 받은 들꽃 모전석탑과 어울림 정겹다

주말이면 학생들 찾아와 자연 배우며 웃음꽃 활짝

천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 온 고찰 분황사의 가을은 특별하다. 어디 가을 뿐이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가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이다.

신라 최초의 석탑인 국보 제30호 모전석탑의 고색창연함이 분황사의 옛 모습을 오늘에 잇고 있는 가운데,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따라 향긋한 꽃내음과 소박한 아름다움을 흩날리는 어여쁜 우리 들꽃이 분황사의 오늘에 또다른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철마다 다른 얼굴들을 내보이며 분황사 경내를 장엄하는 들꽃들은 지난 95년 주지 종수스님의 원력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관광사찰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면서, 모처럼 사찰을 찾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사찰과 들꽃의 조화 속에 무언가 다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때부터 약 40여종의 들꽃들은 철따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기 시작했고, 언제 찾아가도 활짝핀 들꽃들이 오는 이를 반기는 경주지역의 명소 아닌, 명소가 된 것이다.

현재 분황사의 들꽃은 경주시 월성동사무소, 불국동사무소, 경주교육문화회관 등 관공서와 호텔을 비롯해 화랑초등학교, 흥무초등학교, 경주여고 등 곳곳에 퍼져나가 있다. 또한 스님은 소극적인 분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씨도 받게 하고, 분종도 자유롭게 허락한 덕에 경주 시내 곳곳에 우리 들꽃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올해 들어서도 벌개미취, 패랭이, 눈개쑥부쟁이, 용담, 할미꽃 등 다수의 들꽃을 분종해 나눠주었다. 종수스님은 주말이면 들꽃 자연학습을 나온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고생들에게 직접 우리들꽃에 대해 설명해 주며, 더많은 이들이 우리 들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9월 23일 토요일 오후에도 종수스님은 문화재 체험학습 숙제를 위해 분황사를 찾은 경주 근화여고 1학년 학생들에게 분황사의 들꽃에 대해 자상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층꽃나무는 7월~9월에 꽃을 피우는데 줄기 맨 윗부분부터 계단상으로 꽃이 피는 모습 때문에 층꽃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어. 층층이꽃이라고도 하지. 우리 분황사에는 보랏빛 꽃만 피어있지만, 흰색 층꽃나무도 있어. 성질이 강건해서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들꽃이야."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0여 종류의 나무와 들꽃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400여종이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한국 특산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언뜻 보면 작고 볼품없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소박한 듯 화려하고, 화려한 듯 소박한 그 깊은 매력에 대해서도 무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에 잠시 취해 산길을 떠나올 뿐 그 이상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들꽃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름 모를 들꽃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지도 모르겠다.

반면 가을 들녘 곳곳을 장식하며 오가는 이들의 사랑을 받는 코스모스와 하루종일 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 해가 진 뒤 달을 바라보고 꽃을 피우는 달맞이꽃은 각각 멕시코, 북아메리카, 칠레가 원산지인 외국식물이다. 외국에서 들어와 정착해 우리나라 순수 들꽃보다 더 유명해진 이들을 귀화식물이라 부르는데 전국에 280여종이 분포돼 있다.

우리 들꽃보다 오히려 더 잘 알려진 이들 귀화식물 때문에 주변에서 우리 들꽃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 분황사의 들꽃은 작아서 오히려 강한 저항의 몸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통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곳에 우리 산천의 정기를 이어 그 특유의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들꽃들이 자라고 있으니 말이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방금이라도 쓰러질 듯 연약한 모습으로 수만 년을 이어온 그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들꽃들은 해마다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겨우 한 해 혹은 두해를 살다가는 것도 많다. 하지만 들꽃들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생명을 이으며 오늘을 산다.

종수스님의 들꽃 재배비결은 따로 없다. 그저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게 놓아두는 것.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식물들도 생명이 있는지라 세력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의 영역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럴때면 세력이 강한 것을 뽑아서 다른 곳에 심어 주기도 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천연재료로 만든 퇴비를 들꽃 주변에 뿌려주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지요. 나머지는 들꽃 스스로 요령을 터득해 가면서 분황사 주변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피고 지고를 반복할 뿐입니다."

한국불교의 대맥인 원효스님이 머물면서 〈화엄경소〉〈금광명경소〉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던 분황사. 그곳에서 수많은 외국식물들을 제치고 우리 땅 우리 문화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분황사의 들꽃들은 앞으로 분황사가 추진하게 될 중창복원불사와 함께 보다 넓은 지역에서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글=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층꽃나무

◇섬기린초

◇도라지

◇부처꽃

대표적인 우리들꽃

▲섬기린초=울릉도 해안가 바위 위에 나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7월~9월에 황색의 꽃이 피는데, 줄기 끝에 20~30개의 꽃이 달린다.

▲부처꽃=7~8월경에 꽃이 피는 부처꽃은 초원과 산자락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줄기는 곧게 자라고 가지가 많이 벌어지며 꽃은 잎과 줄기의 겨드랑이에서 3~5개가 모여 핀다. 관상용으로도 좋다

▲도라지=산과 들에 나는 여러해살이 풀로 관상용이나 먹거리로 재배하는데, 40~100센티미터 높이까지 성장한다. 꽃은 보라색 또는 흰색으로 7~8월에 피는데 줄기 끝에 한개 또는 여러 개가 위를 향해 피며, 끝이 다섯갈래로 갈라져 있다. 뿌리는 식용 또는 약용하는데 감기로 인한 기침이나 가래, 코막힘, 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

▲층꽃나무=키가 30~60센티미터에 달하는 층꽃나무는 전체에 잔털이 나있고, 7월~9월 원줄기 끝과 가지끝, 각 잎 겨드랑이에서 흰색 또는 보라색 꽃이 층층으로 핀다.

▲두메부추=여러해살이 식물인 두메부추는 5월~10월에 연분홍색의 꽃이 핀다. 꽃의 모양이 난상 타원형으로 독특하다.

▲초롱꽃=백두대간의 등줄기를 타고 백두산 지역에까지 분포하는 초롱꽃은 백두산 해발 1500미터 지역 숲 가장자리의 풀밭과 그 이하 산지에서도 자란다. 5월~7월에 꽃이 피는데 꽃은 보라색 또는 흰색이다. 긴 꽃자루 끝에 길이 4~5센티미터쯤 되는 종 모양의 꽃이 달려 있다.

▲벌개미취=햇볕이 잘들고 습기가 충분한 계곡에서 자라는 벌개미취는 6월~10월 연한 자주색 또는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운다. 눈개쑥부쟁이와 마찬가지로 국화과에 속하는 벌개미취는 도로 주변이나 화단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다.

▲해국=바닷가에 피는 국화라 하여 해국이라 부른다. 중부 이남의 바위 위에서 가을에 연보랏빛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빽빽이 나고 줄기는 비스듬히 자란다.

◇초롱꽃

◇두메부추

◇벌개미취

들꽃 키우는 법

가을에 피는 들꽃은 봄에, 봄에 피는 들꽃은 가을에 심어야 하는데 특히 집에서 키울 경우 가장 햇빛이 잘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심어야 하며, 자주 물을 주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한두뿌리식 따로 키우기 보다는 모둠으로 기르는 것이 훨씬 좋다. 도라지, 초롱꽃, 원추리, 비비추 등은 어디서나 잘 적응하는 들꽃으로 소형화분이나 화단에서 조경용으로 가꿀수 있다. 집단 재배용으로 좋은 벌개미취, 구절초 등은 토질도 별로 가리지 않고, 병충해도 거의 없어서 키우기가 쉽다. 온가족이 우리 들꽃을 가꾸다보면 우리 꽃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가까운 농원이나 야생화 전문 판매점에서 우리 들꽃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배죽

일반 대중음식과 구별되는 '선식'은 자연 그대로의 섭생, 그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다. 선식의 특징은 수행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닦게 하기 위한 소식(小食), 소찬(小饌)이 전제로 되었다.

선식의 정점은 죽으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가장 장려하신 것도 죽식(粥食)이다. 그래서 당시의 수행자들은 아침에 반드시 죽을 먹었다. 불가의 대표적인 음식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사분율〉에는 죽의 5가지 공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공복감을 없애준다. 2. 갈증을 없애준다. 3. 소화가 원활해진다. 4. 대·소변을 잘 조절해 준다. 5. 풍(風)을 없애준다.

만성인후염 · 복통 · 변비에 효과

이밖에도 죽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넘쳐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몸과 마음을 함께 아우르는 아주 특별한 '선식단'인 사찰의 음식은 건강식일 뿐만 아니라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총명하게 돕는 지혜식이자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식의 의미까지 소복이 담겨져 있다.

월정사의 탄허스님, 해인사의 성철스님, 송광사의 효봉스님, 통도사의 경봉스님 등등 우리나라 고승들이 전하는 산사의 선식단을 순례하며 스님들이 즐겼던 음식과 그 탁월한 효능을 살펴보자.

먼저, 불교 최고의 학승으로 〈화엄경〉 120권을 번역하신 탄허스님은 배죽을 비롯하여 잣죽과 곤드레죽을 즐겨드셨다. 오대산의 배가 유명하여 오대산의 선승들은 배 달여 먹기를 즐겼다 한다. 또한 스님은 오대산 주변의 향토식인 올챙이묵이나 총떡, 노리대, 전오기, 굼품나물쌈들을 드셨다.

탄허스님이 즐겨드신 이 음식들은 수험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식으로 권할만 하다.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배 500g(중간 크기 2개) 현미찹쌀 100g(⅔c)

요리법 ① 충분히 불린 현미 찹쌀을 팔팔 끓이다가 약한 불로 천천히 끓인다. ② 배는 강판에 갈아 즙을 만들어 두었다가, 죽이 다 되면 함께 섞어 먹는다.

효능 만성 인후염, 변비, 영양불량, 발열, 복통, 감기, 말을 많이 하는 교사 등에 특히 좋다.

필자약력 약선식 연구가. 〈사찰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